

# 경쟁률 3000대 1, 만점 청약통장 우르르... 청약시장 '후끈'

##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제 적용에 '반값 아파트' 주목  
해당지역·기타경기서 '만점통장'

산성역 헤리스톤 84점 '최고가점'  
동탄2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82㎡A 기타경기 경쟁률 3395대 1

청약시장이 뜨겁다. 한 단지에 1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30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경기도에서도 청약 만점 통장이 즐줄이 등장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서 청약 최고 가점은 만점인 84점이다. 그것도 해당지역과 기타 경기에서 만점 통장이 각각 나왔다.

84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에 부양가족이 6명(7인 가구)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1가구 모집에서 84점 보유자가 당첨된 바 있다. 당첨만 되면 20억 원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과천 지식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스시

정보타운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과천 지역 마지막 '반값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다. 평균 당첨가점이 주택형에 따라 70~75점으로 높았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이번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청약에선 5인 가구 이상만 당첨될 단 얘기다.

만점통장이 나온 단지는 또 있다.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들어서는 '산성역 헤리스톤'에서도 최고 가점이 84점이었다.

특히 헤리스톤의 경우 반포나 과천 단지와 달리 수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도 아니었다.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

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했지만 만점 가점자가 통장을 던졌다.

전용면적 84㎡B 타입에서 최고 가점이 84점이었고, 74㎡A 타입에서도 최고 가점이 83점이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역시 고가점자만 당첨이 됐다. 84㎡A 형이 평균 당첨가점이 7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당첨자 최저 가점은 64점이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기 시작하면서 청약 경쟁률은 점점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청약홈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전일 186세대 모집에 무려 11만6621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82㎡A 형의 경우 기타경기에서 2만 6366명이 몰려 경쟁률이 339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63㎡는 두 가지 타입 모두 기타경기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어섰다.

이 단지는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동탄역 인근 마지막 민간 분양인 테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63㎡와 82㎡가 각각 5억 5660만원, 6억8237만원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파주 운정3 이지더원'도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A 형으로 기타경기가 598대 1로 집계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서울 집값 상승세... 3기 신도시 신속공급”

최상목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이달 내 소상공인 전환보증 신설  
내달 저금리 대한대출요건 완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기계화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화를 위해, 9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하향안정화관리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한다”며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이번 달 내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한대출 요건을 완

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전환관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현재 서울 코엑스(1기)와 명동·광화문광장·부산 해운대(2기) 등 총 4곳에 설치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 중 추가(3기)로 조기 지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는 모두 허가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안전문제가 경미한 경우, 이를 면제해 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시운행 중인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자율주행차량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총 440대로, 이 중 70대가 기간 만료 차량이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창출 및 박람회 나선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과의 장대를 사열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시

## “北, 러와 불법 무기거래... 세계평화 위협”

尹 대통령, 하와이 ‘안보순방’  
인태사령부서 작전현황 보고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1박2일간의 하와이 순방은 '안보 순방'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견디는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안보 순방'의 정점을 찍은 일정은 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한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안보의 중추인 인태사령부를 찾아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 받았다. 태평양사령부에서 인태사령부로 바뀐 후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첫 방문이다. 또한 1981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방문 이후 2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행보를 고려하면 10~11일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규탄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고, 지난날에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 방문으로 1박2일 간의 하와이 순방을 마무리하고 나토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영업점 축소 상황... 장애인 고용 한계”

>> 1면 '7대 금융지주...서 계속

금융지주들은 대면 업무가 많은 업종 특성상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 올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권 업무 대다수가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인 만

큼, 장시간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는 다소 한정적이다”라며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은행 영업점도 축소하는 현상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업종별로 장애인 채용 여

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산업별로 장애인 고용 환경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산업별 이행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다”라며 “이러한 차이를 당연시하기보다는 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 양과 질을 높여 ESG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